

제426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5일(수)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국토교통부 소관
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2
가. 국토교통부 소관
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2

(14시06분 개의)

○소위원장 **한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 사보임이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자로 국민의힘 김종양 그리고 이종욱 위원님께서 새로 사보임을 하셨는데 한 분이 아직 안 오셨고.

이종욱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종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욱입니다.

기재위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기 힘든, 초선은 입성하기 힘든 국토위에 오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국토교통부 소관 중에서 국토 분야를 심사하고 조금 전에 깔린 교통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들도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심사 방식은 정부에서 제출한 안과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내용을 반

영해서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실·국별로 사업을 묶어서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 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사이에 김종양 위원님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종양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 때 인사드렸기 때문에 또 중복되는 것 같고, 아무튼 열심히 배우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환영합니다.

○**김종양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일 경우에는 취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사업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늘 진행했듯이 결론 내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잠시 보류를 해서 마지막에 보류 항목만 묶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소속·지위·성명을 밝히신 뒤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국토교통부 소관

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9)

(14시09분)

○**소위원장 한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국토 분야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는 정부 추경안 원안과 전체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체 토론의 내용을 통합하여 작성한 것이고, 예산의 증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예산 집행상의 운용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은 7페이지부터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자료 1페이지, 국토도시실 소관 8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 8건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정부 원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도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토도시실 소관 8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별도 의견 없으시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소위원장 한준호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이어서 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토지실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 연번 1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연번 2번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와 관련해서도 대체토론 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중에서는, 미분양안심환매출자 2000억 원에

대해서는 그 출자액 2000억 원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미분양안심환매출자가 아닌 용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PF 위기극복특별보증 2000억 원에 대해서는 PF 위기극복특별보증 사업은 시공 순위가 100위 밖의 우량 건설사이면서 제2금융권이라는 엄격한 지원 대상 요건을 고려할 때 사업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대상 조건을 완화하거나 1000억 원을 감액해서 도로 분야 소규모 SOC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번 2번 미분양안심환매(용자) 사업부터 5페이지 지나 6페이지까지입니다.

6페이지의 연번 7번 행복주택(용자) 사업까지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연번 8번 전세·매입임대 경장보조와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전세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LH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부대 비용 64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 미분양안심환매출자 2000억의 일부 또는 전액을 용자로 전환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실상 아시다시피 HUG가 전세 사기의 여파로 22~24년까지 3년간 대위변제액만 한 7조 원 정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HUG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출자를 2000억 출자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거를 용자로 바꾸게 되면 결국 나중에 건설사가 환매해 갈 때 그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바꾸게 되면 HUG의 조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출자는 조달 비용이 제로가 되는데 용자를 하게 되면 그 용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또 반납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건설사에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부대의견에 있지만 권영진 위원께서는 오히려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취득세 같은 거, 2008년에 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했는데 이런 부분을 줄여 줘야 된다는 부분과도 배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당국에서도 이거를 이런 측면 때문에 3000억 전액을 출자하는 걸 모

텔로 세웠었는데 일반회계 재원 부족 때문에 부득불 1000억은 공자기금 용자를 해서 기 금융자 사업으로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지금 정부 측에서 주신 의견 중에 부대의견은 4번 얘기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참고해 주시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다음 PF 위기극복특별보증 2000억에 대해서도 사업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1000억 원을 감액해서 도로 부분 소규모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현재 사실상 저희가 지금 PF 대출보증을 건설이 어려워 많이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봤더니 PF 대출보증을 받아간 게 한 110개 중에서 90개가 다 100위권 안입니다.

결국 100위권 밖의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소외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또 여러 가지,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대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든요, PF 보증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소외된 100위권 밖의 중소기업과 또 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특별 PF 보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금융권의 PF 신규 대출이 연간 한 11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10% 정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당초 목표로 세운 3년간 2조 원 공급하는 사업 수요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것을 만약에 감액 또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밖에서 이미 형성된 여러 가지 건설사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이런 데 기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업계에서는 이것을 좀 더 늘려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같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증 실적을 봐 가면서 이게 실제 계획보다 실제로 좀 준다, 잘 안 나간다 그럴 경우에는 필요시에 어떤 보증 규모라든지 이런 것 조정을 통해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제가 제기했으니까 차관님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안심환매출자는 사실은 말씀하시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것은 HUG 재무 상태에 따른 대위변제 문제라든지 결과적인 채권 발행금리가 올라가고 안 하고 하는 그 문제하고—그 문제는 당연히 있는데—미분양안심환매출자를 출자로 할지 용자로 할지는 다른 문제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만 봐 가지고, 이 사업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매가, 지금 미분양되고 있는 것 중에 분양가의 50%로 매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중에 다시 되사가야지요, 분양가의 50%로 정부한테 물건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 프로젝트 자체의 손실이라든지 위험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해 볼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런 전제하에서 본다면 결국은 차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무 상태, 자기자본 확충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목적하고 출자하는, 이 프로젝트에

출자금액으로 넣는 것과고는 다르다는 것을 저랑 인식이 다르지는…… 자인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아니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이게 기업들의 자구 노력,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의 50%로 HUG에 팔고 나중에 환매해 갈 때는 결국은 50%에다가 부대비용을 입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건설사들이 환매를 해 갈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출자가 아닌 용자로 전환하게 되면 결국은 그 용자금에 대한 이자하고 다음에 취득세, 각종 부대비용을 덧붙여서 가기 때문에 건설사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지요.

지금 2000억을 출자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채권 발행금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것을 출자로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 용자는 공자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용자를 해 주는 겁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래서 결국은 공자기금에서 3000억을 용자를 받느냐, 아니면 현재처럼 출자 2000억과 공자기금 1000억 용자를 받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재원이, 3000억이 다 용자사업으로, 용자자금으로 되게 되면 HUG는 나중에 환매할 때 자기자본비용을 결국 붙여서 부대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결국은 환매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지요, 조금 올라가지요. 조금 올라가는데 그 차액만큼을 출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차액만큼 출자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출자로 봤을 때는…… 출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주고 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주고 마는 거지요. 주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해 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상당하는 것에 출자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는 이자가 발생 안 하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이종욱 위원 용자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갚을 때우기 위해서 2000억을 출자한 것이라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설사가 나중에 결국은 환매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건설사가 환매해 갈 때 결국은 HUG가 공자기금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빌리는 것에 대한 이자를 업혀서 줘야 되기 때문에 건설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취득세가, 아까 전에 권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득세가 4%, 4% 붙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면 환매에 들어가는 그 금액이 취득세 4%, 4%에다가 금리에다가 부대비용 하면 5%에서 한 17% 정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건설사의 부담을 좀 줄여 주려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 것이라라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당국에서 설계할 때도 100% 출자를 고려했지만 일반예산의 재원 부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융자를 제로금리로 융자할 수도 있잖아요. 공자기금에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아니,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금리가 있기 때문에……

○이종욱 위원 아니, 있는데 그것을 예외적으로 제로금리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융자와 출자를 구분해서 하시라니까요. 출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가 싸진다, 그렇지요? 공자기금에 이자를 받고 빌려 와서 그 돈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시공사한테 주게 되면 그만큼 더 비싸진다는 것이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이종욱 위원 그게 출자나 융자하고 관계는 없어요. 융자를 받아 오더라도 금리를 아주 낮은 금리로 받아 오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요, 나머지 차액 부분은 국토부가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출자나 융자나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굳이 솔직히 말을 하면 이러저러해 가지고 출자금액을 좀 저것 해서 HUG 재무 상태를 좀 개선하자 이것인데 제가 말한 취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출자 루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사업에 넣어서 하는 것은 조금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저는 이해는 하는데 융자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자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승복이 잘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한준호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우선 그러면 이 사안 이따가 교통으로 넘어갈 때 차관님께서 이종욱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시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 빼놓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제가 좀……

○소위원장 한준호 예,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사업 이것,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김도읍 위원 이게 작년 11월 달에 차관님이 발표한 내용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기억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김도읍 위원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사업장에 PF 대출을 실행하려는 금융회사는 충당금 등을 상향 설정하도록 하는 이 내용과 좀 배치된다고 보이는데 어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전번에 발표했던 것은 결국은 현재 저희가 PF 사업을 하면서 워낙 5% 이하의 낮은 자기자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있어서 리스크도 커지고 그래서 점점 자본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전번에 우리가 부동산사업관리법을 제정을 하면서 PF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인 사업 관리 또 정보 시스템도 만들고 각종 PF 사업에 대한 조정 기능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예산안은 소위 말하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특히 사업성은 있는데 여러 가지 토지 구매 단계에서, 브릿지론 단계에서의 자금 대출이 어려운, 최근에 건설이라고 그러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앵커리츠를 통해서 한 5% 이하의 저리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현재 사업성은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건설업체 또는 건설 현장이 지방에 있을까요, 수도권에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성하고요 위원님, 제가 하나 더 첨언을 하면 공공성 이런 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권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 안 되도록 저희가 지역과 균형되게 여러 가지 사업의 리스트나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 사업체를 선정하는 용역 중이지요? 소위 말해서 우량 개발 사업장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용역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용역 중인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결국은 리츠를 담당할 AMC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AMC를 선정할 때 AMC가 그것에 대한 사업을 아예 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앵커리츠를 통해서 우량 개발사업장에 브릿지론 등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그 사업장 선정을 AMC인가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김도읍 위원** 용역 중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입니다.

앵커리츠가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3단계로 나뉘서 사업을 선정할 겁니다. 첫 번째, 이 앵커리츠를 집행하는 AMC를 선정할 거고요. AMC가 사업을 선정할 때 자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이드라인 네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사업성과 공공성과 안정성과 정책 기여, 이 네 가지 항목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AMC가 대상 사업을 하반기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지금 완성이 됐나요?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가이드라인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나요? 수립하기 시작했나요?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추경 검토하는 단계부터……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가이드라인을 지금도 아직…… 어느 사업장에 어떻게 주겠다, 구체성이 떨어지잖아요. ‘예산 주십시오, 주시면 가이드라인 만들어 가지고 잘해 보겠습니다’ 이것 아니에요? 지금 시급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추경을 하는데 돈 쓰일 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소위 말해서 기준도 없이 ‘돈 주면 기준 만

들어서 잘해 보겠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이 단계 자체가? 맞잖아요.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위원님……

○김도읍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7개월 전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하고는 제가 볼 때는 좀 상치되거나 배치되는 거다.

그리고 보십시오. 사업성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개발사업자, 결국 어디겠습니까?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고 지방은 지금 3년, 4년째 부동산 가격이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고. 결국 사업성이 있고 그러나 돈은 좀 없다, 수도권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영진 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고 여러분이 뭐라고 답을 했든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추경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정말 시급한 곳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고 1조 원을 조성해 가지고 브릿지론으로 돈을 출자하는 투자를 하는데 대상 사업장도 아직 명확하게 가이드라인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은 왜 이 예산 항목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는지…… 추경을 하면서 이것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2024년 11월 달의 제도개선 방안하고는 약간 엇박자 내지는 상치되는 것 같아.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위원님, 첨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작년에 저희 11월 달에 발표했던 PF 제도개선 방안은 자기자본비율이 3~5%, 아주 낮은 자기자본으로 사업하는 PF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올해 3000억의 추경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할 텐데, 자기자본을 한 50% 정도 가지고 있는데 20~30%에 대한 자금이 부족해서 브릿지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결국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업장에 한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퀴티(equity)가 낮은 아주 불안정한 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이 손실을 보면 저희 담당자들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김도읍 위원 글썄, 그런 게 지금 수도권에 편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안정성,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 보다 보면 결국은 이게 수도권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위원님, 저희가 부동산……

○김도읍 위원 그리고 결국은 이걸 가이드라인 다 만들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사실상 내년도에 집행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맞습니다. 저희 가이드……

○김도읍 위원 말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일단은 저희가 부동산개발협회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PF 사업들의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수도권이 80%, 지방이 20%입니다. 현재 그렇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PF 앵커리츠를 만들게 되면 지방 사업장

은 전체 사업비에 토지비가 10~20%고 수도권은 30~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PF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비중에 맞춰 가지고 지자체 지역 사업도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만들진 않았지만 HUG에서 피해 보증을 할 때 보증을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인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 다 만들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체 PF 규모가 110조고 그중에 브릿지 단계, 땅 매입하는 단계에서 브릿지 단계가 한 17조 원 되는데 현재 신규 브릿지 대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단계부터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차후에 부동산의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한 예로 2020년도 4월 달까지의 인허가 실적이 16만 호인데 현재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인허가 실적이 9만 호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브릿지 단계에서 토지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인허가가 안 돼 가지고 주택 공급이 갑자기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6개월이라도 빨리 이런 앵커리츠를 통해서 정말 그 20~30%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토지비를 지원해서 인허가 실적을 올려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김도읍 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아마 국토부도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실무자께서도 그렇지요?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김도읍 위원 그래서 이 예산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일정 부분 공감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실무자께서도 설명을 잘 주셨는데, 제가 지적한 문제점과 걱정거리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께서, 이러한 사업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만 일단 사업에 대한 구체성 그다음에 정부 주도의 PF 사업의 투자 안정성, 공공성 및 경제 파급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해하시지요?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예.

○김도읍 위원 그리고 유사 PF 지원 사업 고려 시 사업이 수도권으로 편중되거나 또 사업실적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데 대해서도 이 부분을 녹여서 부대의견을 주시면 이 사업을 일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충분히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이해를 하시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위원님, 지금……

○소위원장 한준호 너무 안정성에만 치우치거나 그러면 지역 편중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정리를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예, 부대의견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부대의견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보고 다시 이야기하시지요.

-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위원님, 참고로 현재 7페이지 부대의견 5번에 보면 그 일부 내용인데 이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 김도읍 위원 그래요, 보완하십시오.
- 정점식 위원 5번, 6번도 합쳐 가지고……
-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5번 6번 다 합치면 됩니다. 5번 6번이 다, 부대의견이 그 의견이거든요.
- 소위원장 한준호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이종욱 위원님.
- 이종욱 위원 차관님, 아까 PF 특별보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답변하시면서 연간 11조 PF 대출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신규 PF 대출……
- 이종욱 위원 예, 신규. 그런데 그것은 전체 PF 같고, 지금 이 사업은 조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 건설사면서 제2금융권이면서 우량 사업장, 그렇지요?
-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의 신규 PF가 11조가 아니고요, 제2금융권의 신규 PF만 11조라는 말씀입니다.
- 이종욱 위원 예, 그래서……
-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래서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제2금융권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10%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 이종욱 위원 그런데 차관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사무실에서 담당 과에 알아본 것하고는 좀 달라 가지고. 그 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 조건에 충족하는 사업장을 찾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이 사업의 조건에 충족되는 후보 리스트를 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러겠습니다.
- 손명수 위원 5페이지 있잖아요, 차관님. 5페이지, 3번 전세임대(용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LH가 하는 거예요?
-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 손명수 위원 그러면 이것 정부 재정으로 신희부부에게 1억 7000만 원의 80%를 용자해 주는 거예요?
-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지금 이게 소요가 1360억 원이 나왔는데요. 그 소요는 지금 현재 호당 1억 7000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신희·신행아Ⅱ가……
- 손명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희가 있고 청년이 있고 죽 있는데 이게 호당……
-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평균 금액이고요.
- 손명수 위원 평균 금액의 80% 또는 95%를 빌려준다 이런 겁니까, 용자해 준다?
-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아닙니다. 80%와 95%와 80%를 기금에서……
-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장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입니다.
80%를 기금에서 직접 체결을 하고요, 나머지 20% 그리고 5%에 대해서는……
-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사업자 부담입니다, 입주민하고 사업자.
-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장 김도곤 입주민이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 구조입니다.
- 손명수 위원 아니, 그러면 기금에서 LH에 이 돈을 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장 김도곤 예, LH가 임대인과 직접 계약 체결을 합니다.

○손명수 위원 하고.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장 김도곤 예, 기금을 받아 가지고요. 기금을 통해서요.

○손명수 위원 받아 가지고.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장 김도곤 예.

○손명수 위원 그래서 이 80%, 95%를 빌려주고……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장 김도곤 예, 맞습니다. 기금에서 합니다.

○손명수 위원 나머지 20%나 5%를 자기 돈 대서 전세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장 김도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러면 그걸 계속 유지 관리는 LH가 하고? 주로 매입임대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월로, 신축 임대료?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아닙니다. 기존 주택을 세입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손명수 위원 아, 기존 세입자가 찾아오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이 가격에 맞는 주택을 찾아오면……

○손명수 위원 거기에 대해 돈을 빌려준다, 전세금을?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찾아오면 임차인이 주인한테…… LH가 그 집을 주인하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이 찾아온 사람한테 전세임대를 해 주고 대신에 그 보증금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부담하고 많게는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용자 사업이 되는 겁니다.

○손명수 위원 그러면 그 용자에 대한 이자는 누가 갚아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장 김도곤 그 용자금의 1~2%의 이자에 대해서는 입주민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손명수 위원 입주민이 내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장 김도곤 그렇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에는 청년월세주택 한시 지원 20만 원 이런 게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건 현금 보조 사업입니다.

○손명수 위원 현금 보조 사업이고. 그러면 결국 용자 사업은 대신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내라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제가 당장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전세제도에 대한 지원을 계속 정부가 하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결국 이게 월세 지원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건데, 차라리 그 이자 차익만큼을…… 세입자 부담을 줄여 주는 게 목적인데 지금 이렇게 큰 목돈을 자꾸 전세로 지원을 하니까 재정 소요도 많고. 그런데 시장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효과는 오히려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는데, 실질적으로 부작용도 덜하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세제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 이자 부담을 더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잖아요, 임차인에게.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전세제도를 하니까 돈도 엄청, 몇천억 막 이렇

게 조 단위로 들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HUG가 7조씩 빵꾸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앞으로 계속 축소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진짜 임차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에 왜곡만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신혼부부든 청년이든 이런 모든 주거 지원 정책은 월세로 가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월세와 그다음에 건설형 임대를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건 당연하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그런데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주택을 살고 싶은 그런 또……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에 살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다. 그 주택을, 왜 그걸 큰돈을 융자를 해 주냐는 말이에요. 결국 그것 이자 부담하고 그러는데 그 집에 월세로 살게 해 주고 100만 원짜리 월세인데 나한테 돈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50만 원만 내세요. 50만 원은 차라리 지원해 줄게요’ 이게 낫지.

○소위원장 한준호 제가 개입해서 죄송한데 일단은 우선 저희가 추경이기 때문에 관련 사안들……

○손명수 위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추경이니깐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알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앞으로 제발 좀 전세 지원 정책은 줄이세요, 제발.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혹시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부대의견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부대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7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는 8건의 부대의견은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 사업 등을 운영함에 있어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부대의견의 내용은 정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심사 과정에서 5번, 6번과 관련된 PF 선진화 마중물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려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추가해서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위원님들 부대의견 중에 혹시 의견 있으신 것 주시고요. 나머지 저희가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들은 교통 분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이종욱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중간에 설명을 따로 좀 주시고요. 그 부분 정리가 된 것 부대의견과 함께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에 대해서 보류사업을 제외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심사를 마친 후에 국토 분야 보류사업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 정돈하고 교통 분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교통 분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이견이 있는 것들만……

○전문위원 임종수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1쪽입니다.

항공정책실 소관 4건입니다.

항공정책실 소관은 첫 번째, 제주공항 시설개선 사업을 포함한 4건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증액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은 제시한 바 없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특별한 의견.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종수 그럼 다음 쪽, 2쪽입니다.

이번에는 모빌리티자동차국 소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1건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정준호 위원님께서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광주광역시에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여기까지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이어서 도로국 소관 소위 자료 3쪽입니다.

도로국 소관 3쪽과 4쪽 일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 소관에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첫 번째, 신안 압해-화원 도로 건설사업을 포함한 총 9건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3쪽에 나와 있는 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바는 없습니다.

다음, 4쪽을 보시면 첫 번째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김정재 위원님께서, 당초 정부에서는 현재 영일만 구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지연되고 있어서 해당 사업의 공사비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추경을 제안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본

예산 수준으로 복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역시 정부 측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해당 구간에 포함돼 있던 공사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정준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본예산 수준으로 복귀를 위해서 366억 6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고속도로 조사설계 사업의 내역사업 중에서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평가 용역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송기현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아래 일반국도 건설 지원사업에서는 윤종균 위원님께서 38번 국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 건설을 위해서 평택에서부터 안성 남부를 동서로 잇는 새로운 경기남부 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기현 위원님께서 제천 봉양-원주 신림 간 국도 건설을 위해서 신규 착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여기까지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연번 1번에서 4번까지는 의견 없습니다.

연번 5번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1821억 감액액은 이게 시공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업이 적정성 검토 중이기 때문에 공사 단계까지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또 설계 절차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을,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에 대한 의견 수용입니다.

그리고 연번 6번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건설에서는 현재 367억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광주시하고 국가, 도로공사가 사실 이 부분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소위원장 **한준호** 비율이 지금 5 대 5인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5 대 5입니다. 정부가 20, 도로공사 30, 광주광역시 50 이렇게 해서 협약을 10년 전에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설계를 작년에도 했는데 광주시 분담금이 100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필요한 금액이 367억인데 이 부분을 지금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광주시에 유선 확인을 해 보니까 여전히 지금 분담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감액이 불가피한 것 같고요. 앞으로 예결위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정리가 된다면 저희는 이 부분을 다시 살려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하나 대안으로 지금 여기에서 만일에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도로공사 50% 분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진전이 된다면, 광주시가 분담금만 낸다 그러면 도로공사 매칭비용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일단 광주시가 의지를 밝힌다고 하면 도로공사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참고해 주시고, 일단 다 진행한 다음에 위원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리고 연번 7번입니다.

송기현 위원님께서 영월-삼척 타당성 용역비 30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시급성 등을 고려했을 때 10억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억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그리고 연번 8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관련 계획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지 별도로 연구용역을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번 9번 이 부분은 연말에, 11월이 지나야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착공을 올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여기까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6번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관련해서 도로공사에 지금 남아 있는, 예산 내려가 있는 금액이 도대체 얼마 정도로 알고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내려가 있는 예산은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분담이 정부가 20이고요.

○정준호 위원 그건 알고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위원님, 지금 저희가 광주시한테 올해 367억 공사비 분담을 요구했는데 도로공사에서 그 매칭되는 금액 367억을 다 댈 수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전액 다 남아 있다고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대체……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려서 간단하게 조금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광주시비 매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원인 제공한 측면도 좀 있지만 관련해서 시비 집행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것이 도로공사하고 광주시하고 주고받았던 공문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별도로 안 거치고 감액 처리가 되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저도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백방 개최해 가지고 여러 번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 자체 노력이 과연, 작년 국감 때도 제가 명시적으로 부탁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광주시에서 의사를 밝히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광주시의 입장을 끌어내서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좀 덜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어쨌든 예결위 단계에서라도 광주시가 집행 의사를 보이면, 실제로 시비 매칭비용을 집행을 하면 그에 맞추어서는 예산이 집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정점식 위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이게 지금 노선 때문에 이런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 노선에 대해서 결국 기존의 노선과 포항시가 지금 이야기하는 노선이 조금 달라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에 KDI가 해상으로 가는 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육상으로 돌리면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또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게 해상은 원래 해상으로 간다고 되어 있으니 해상으로 가되 그 선을 해상교량을 조금 짧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정점식 위원 한쪽으로 당기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그러면 훨씬 시계도 가까워지고, 한 2km 정도 떨어지거든요. 당초대로 하면 4km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관광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돈도 줄이고 관광 효과도 있으니 그런 대안을 검토해서 하는데 지금 형산강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포항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점식 위원 그게 올해 이내에 확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저희들은 올해 열심히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노선을 매듭을 지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잘못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차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하는 게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실제로 지금 담겨 있는 1820억은 시공비하고 용지비입니다. 너무 후단에 있는 것을 앞으로 당겨놔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속도를 아무리 낸다 하더라도 설계 기간을 생각한다면 집행이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봅니다.

○정점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여기까지 심사를……

○정점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대의견 좀 달아 가지고, 김정재 위원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정점식 위원 부대의견이라도 간단하게 ‘조속히 한다’ 뭐 이런 것……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부대의견을 어느 쪽에서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영일만 구간에서 어쨌든 설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정점식 위원 설계 때문에 그런단니까 할 말이 없네요.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 하거나 멈추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어쨌든 사업을 가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하고, 지금 그게 KDI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극복해서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태준 위원 그런데 그게 당초에 예산 할 때는 안 그랬어요, 애초에 예산 세울 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작년에 예산 세울 때요?

○안태준 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때도 그랬는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때도 하여튼 열심히 해서 한번 진입해 보자 이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시기상조인 감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직진을 하느냐 돌아가느냐, 지금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안태준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그러니까 정권의 문제라고 서로들 그러는 거예요.

○소위원장 한준호 어쨌든 저희가 심사 보류된 부분들을 검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혹시 김정재 의원실에서 관련해 가지고 조율될 수 있는 부대의견이 있으면 주시고, 그거를 검토해서 답는 방향으로 가시지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이어서 철도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철도국 소관의 일반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 8쪽까지 이어서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1번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사업부터 5쪽과 6쪽 그리고 7쪽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의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그리고 8쪽의 연번 10번까지 모두 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정부 측 제2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과정이나 기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는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도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관련해서 혹시 대체토론 때는 못 했는데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정점식 위원 지금 8쪽까지 한 거지요?

○전문위원 임종수 5쪽에서 8쪽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정점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언급하고……

○소위원장 한준호 우선 김도읍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점식 위원 예.

○김도읍 위원 먼저 하십시오.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정점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점식 위원 제가 전체회의 때도 당부를 드렸지만 8쪽의 8번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실은 저로서는 이 500억 감액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시설계가 기존에 계획했던 7월에서 12월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공사비 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정부 측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 의견만 밝히면서 특별한 의견 없이 넘어가는데 전체회의에서도 당부드린 것처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김도읍 위원 차관님은 항상 법안 심사든 예산 심사든 하면 막힘없이 설명을 잘해 주 세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업무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늘 감 사하게 생각하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감사합니다.

○김도읍 위원 이번 추경 목적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기조하에서 국토부가 추경안 을 마련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여력 보강, 건설경기 활성화, 신산업 투자 지원, 소 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고용 안정, 물가 안정 이런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5페이지,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 이거는 과연…… 지금 시스 템구축비 251억하고 공사비 186억하고 이렇게 증액하는 걸로 와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추경의 목적과 상황에 맞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사실 말씀하신 그런 목적하고는 약간 거리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철도 관제가 사실 핵심인데……

○김도읍 위원 목적이야 지금 이 관제센터 일은 시작한 거고, 그런데 시스템구축비를 굳이 추경에,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데 이렇게 마른 수건 짜듯이 추경 짜면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고 시급성도 없는 251억을 넣은 것을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시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 안전도 중요하고 또 철도 안전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 니다. 또 고속철도·일반철도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앞 연번 1번에서 4번이 다 그런 내용인데요. 27년까지 이 사업을 완성해서 28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됩 니다.

지금 철도관제센터가 구로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스톱이 돼 버리면 우리나라 철도 관제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듀얼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오송에 지 금 제2관제센터를 짓고 있는데 지금 목표 연도는 27년까지 끝내서 28년에 가동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회 되시면 그 현장을 한번 보시면, 그 시스템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다섯 가지 시스템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것을 구현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시범가 동을 좀 해야 되고요. 검증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역순으로 해 보면 지금부터 1년간 시스템 개발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을 내야, 그래서 1년 반 시운전을 해 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상당한 시급성 문제 때문에 반영된 예산이다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이게 센터가 원래는 26년 준공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지금 예측건대 빨라야 27년 12월 준공 이렇게 되는데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게 같이 이렇게 지연되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투 트랙으로 가는데요. 이게 1년 지연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건물을 짓는 게 있고요 시스템 구현하는 게 있는데 이번 증액 예산은 시스템 구현 쪽이고 건물 짓는 게 원래 26년까지가 사업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짓는 과정에 상당히 사업비가 늘어나서 총사업비 협의 과정 프로세스를 밟다 보니까 사업비도 늘어나고 공기도 1년 연장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 기간은 2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들, 사업비 증액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간단히 치더라도 시스템 구축은 계획대로 가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준공 날짜는 오히려 1년 이상 늘어났는데 시스템 구축을 미리 할 필요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당국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게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김도읍 위원** 추경을 빙자해서 그러면……

○**손명수 위원** 차관이 이것 지금 설명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김도읍 위원** 잠시만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까지 1년이 연장되고 사업 기간은 27년인데 그걸 역순으로 해 보면 1년 반 정도를 검증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구현을 지금부터…… 이게 절대 구현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1년 하고 시스템 구현하면 딱 27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빠듯한 일정으로 지금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담았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의견 또 있으십니까?

○**김종양 위원** 간단하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김종양 위원님.

○**김종양 위원** 지금 호남고속철도 건설하고 평택-오송 복선화하는 그런 문제……

○**소위원장 한준호** 번호를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 각 1000억씩 지금 증액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포함되는 것까지 전액 다 집행 가능합니까? 지금 7페이지, 1·2번……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김종양 위원** 기사를 보니까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안전 문제가 완전히 지금 클리어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안전 문제를 명확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올해 편성된 예산 외에 이 1000억까지도 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아까 사실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호남고속철도의 지반침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까지 다 짚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집행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렇게 담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종양 위원** 지금 3차 추경도 있을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남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개통이 27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률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돈을 좀 더 담아서 해야 27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김종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팬찮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대광위 소관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대광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내용이 있고, 9쪽입니다.

9쪽의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 정부에서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 위원님들의 대체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쪽에서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안태준 위원님께서 이번에 계약 갱신의 대상이 되는 노선들에 대해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5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마지막 11쪽까지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 임종수** 11쪽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박용갑 위원님과 황운하 위원님께서 대전시에 있는 사정교-한밭대교 구간 도로의 신규 건설을 위해서 설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연번 1번에서 4번까지는 이견 없습니다.

10페이지, 연번 5번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5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117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약을 다시 갱신을 합니다. 갱신계약을 하는데 지금까지 9개 품목에 대해 가지고 산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4개 항목에 대해서는 5년간 계속해서 동결을 시켜 놔왔습니다. 그 4개 항목이 뭐가 하면 차량에 대한 정비비나 보험료나 기타 차량유지비, 일반관리비 이 부분은 반영을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갱신할 때 이 부분을 좀 태워서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20억 원 증액 반영 필요 입장입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도도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증액 없이 의결하다 보니까 이 사업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다 작년에 증액 의결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 부분이 상임위는 통과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통과되지 않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20억 반영해 주시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여기까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손명수 위원님.

○손명수 위원 질문인데요. 9페이지, 4번 있잖아요. 대전도시철도 2호선, 이게 트램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트램입니다.

○손명수 위원 트램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 대전 전체 순환선을 트램으로 건설한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런데 그중에 지금 일부 구간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습니다. 총 16개 공구인데요 지금 7개 공구는 착공이 돼서 하고 있고 9개 공구가 연말 내에 다 착공이 됩니다.

○손명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다 트램으로 계획이 확정이 된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손명수 위원 제가 듣기로 거기 도로가 지금 8차선인데 트램을 구축하려면 3차선을 도로를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전권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대전인데 대전에서 지금 여기 일부 구간을 트램으로 하면서 또 일부 구간은 트램하고 비슷한데 버스로, 그러니까 트램이 친환경성, 정시성, 대량성 이거잖아요. 요즘은 전기버스, 수소버스가 똑같은 효과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값은 10분의 1 이하, 유지보수까지 하면 훨씬 더 싸요. 그리고 그거는 버스 차선도 잡아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1개 차선으로 하고. 그래서 그걸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역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에 시작한 일부 구간 시범사업은 하되 일부 구간은 또 굴절형 버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개의 시범사업을 해서 그 효과를 보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는 거는—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대전권에서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소위원장 한준호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좀 조심스러운 사안이라, 어쨌든 특별히 예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건 아니시지요?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깎는 건 아닌데 이 계획을 국토부에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지역 동향이라든지 또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사실은 제가 이거 청탁을 받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한준호 너무 솔직하셔 가지고……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소위원장 한준호 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부대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12쪽, 부대의견입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모두 9건의 부대의견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1번과 네 번째 4번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된 부대의견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1번, 4번, 5번 지금 정부 측 의견이 좀 있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1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까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다만 여기에 ‘수의계약 업체’라고 그러는데 사실 수의계약이 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빼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연을 유발한 업체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강구한다’ 그 뒤에는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이 부분은 김도읍 위원님 의견을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대의견 1번인데요. 여기에 수의계약 업체인데 실제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 계약 부분은 빼자라는 정부 측 의견이고요. 그리고 ‘엄정한 조치를 강구한다’를 ‘법적조치를 검토한다’ 이렇게 바꾸자라는 의견이네요.

○김도읍 위원 그래서 수정해서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지연을 유발한 업체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강구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지요. 밑의 줄 수정수용 해 놓은 그겁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법적조치를 검토한다’, 수정수용을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요.

○소위원장 한준호 예, 그렇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4번, 5번 의견 주십시오.

○손명수 위원 4번은 제가 한 건데 그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왜…… ‘적극 추진한다’가 부담스러워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이게 지금 최종이 반영 안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래요, 이것은 적극 추진해야지.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4번은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고.

5번.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5번은 조금 수용 곤란한데 이 부분은 의원님실에 양해를 구해서, 일단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 문구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적극적 사업 관리를 통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양해를 구하셨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소위원장 한준호 그것은 이따가 전체 다 검토할 때 위원님들에게 나눠 주시도록 하고요.

○전문위원 임종수 그리고 5번은 문장 중에 괄호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의원실과 국토교통부가 협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아, 그래요?

○정준호 위원 노선만 빼는 거네요?

○전문위원 임종수 예, 노선을. 구체적인 지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위원님들 논의 중에 말씀하셨던 김정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

○소위원장 한준호 우선 이것 위원님들 다 나눠 드린 다음에 시작하시지요.

잠시만요.

위원님들 자리에 다 나눠 드렸습니다.

시작하시지요.

○전문위원 임종수 영일만 대교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영일만 대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동 사업의 설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라는 문구로 김정재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부대의견에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이것은 의원실하고 조율을 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임종수 예, 의원실과 확인했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부대의견 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예, 정부도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 분야 이렇게 해서 의견을 다 나눴고요.

특별한 의견이 더 남아 있지 않아서 교통 분야는 이렇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통 분야 사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나머지 부대의견하고 좀 조율할 부분이 있으니까…… 한 15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준비하시는 데?

○전문위원 임종수 예, 일단……

○소위원장 한준호 15분, 20분이면 되겠어요? 15분 정도만 하시지요.

○전문위원 임종수 예, 15분 정도. 30분에……

○소위원장 한준호 그러면 30분에.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해서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한준호** 우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들 다 나눠 드렸지요, 이종욱 위원님 것 부대의견 달아서?

그러면 국토 분야 보류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는데요 우선 두 건의 부대의견에 대한 심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류사업으로 남겨진 국토 분야 자료 4페이지, 연번 1번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사업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관련된 자료와 추가적인 설명을 이종욱 위원님께 사전에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의견을 먼저 들은 후 다시 논의를 이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나머지 PF 관련된 것 5·6번 이것도 그냥 같이 설명을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7페이지의 5번, 6번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 내용을 추가해서 부대의견이라고 해서 A4 세로 형태로 되어 있는, 당초 5번, 6번을 묶어 가지고 거기에 김도읍 위원님의 내용을 추가해서 변경안과 같이 ‘국토교통부는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엔지니어링 출자 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건설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성·공공성·안정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지원 대상이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방권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면밀히 수립한다’로 이렇게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정부 측에서는 이종욱 위원님께서 주신 4페이지 내용 관련해서 설명 주시고 부대의견까지 같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분양안심환매 사업은 과거에 2008년에서 13년까지 저희가 했던 사업인데 그때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수도권도 미분양이 꽤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 심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지방에 한정해서 미분양안심환매 사업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 3년간 HUG가 여러 가지 대위변제가 지금 6~7조에 달하고 해서 절대적인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28년까지 1만 호에 대한 환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소위원장 **한준호** 차관님, 너무 설명이 기니까요 조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그래서 저희가 정부안대로, 당초 안대로 가고 특히 HUG의 최근 한 7조 원의 누적된 여러 가지 대위변제에 따른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과 내년에 총사업비 한 30%를, 3000억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히 지방에 대한 한정인 만큼 현행 2000억 출자와 1000억 용자로 하되 여기 부대의견에 내용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HUG의 재무 상황과 각 사업별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이종욱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소위원장 한준호 그다음 나머지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조금 전에 말씀하신 5번, 6번 통합하는 부분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준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토 분야 사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한 사안을 반영해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서와 부대의견 작성에 있어서 경미한 자구 및 계수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특히 국민의힘 전원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및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도읍 김종양 김희정 손명수 안태준 윤종오 이종욱 정점식 정준호 한준호

○출장 위원(2인)

염태영 이연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중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제2차관 백원국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윤진환

국토정책관 김지연

공항정책관 김홍락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

단장 김정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김수상